

주한외교단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알프레도 웅고 외교단장님, 그리고 주한외교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마다 녹지원에서 여러분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좀더 편안한 자리에서 모시려고 이곳 영빈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2개국을 방문하고 국내외에서 167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러분 덕분에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국가 간 협력과 국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외교단 여러분,

4년 전, 여러분을 처음 모신 자리에서 저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좀 지루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국민소득 2만 달

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같은 과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목표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저 또한 불안했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카드체 사태로 경제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지만, 적어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균형발전과 사회투자 전략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가 상승이나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출, 외환보유액 같은 경제지표들이 모두 좋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경쟁력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열심히 풀어 왔고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만할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철도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는 확실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14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결정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만큼 여기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나라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던 만큼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유엔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데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외교단 여러분,

앞으로도 한국과의 우호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한국과 여러분 나라와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